

## 이런 유언장은 '무효'

자필증서 - 날짜·주소·이름 빠졌을때

구두증서 - 병석에서 '고개 끄덕임'도

120억원대의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3년 가까이 끈 '날인 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연세대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사회사업가 고(故) 김운초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김씨가 연세대에 앞으로 남긴 예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대법, 연세대 120억 소송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스스로 적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소송은 김씨가 사망 전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우리은행 한 지점에 맡긴 데서 비롯됐다. 이 유언장에는 날인이나 무인(손도장)이 없었다.

유족은 2003년 12월 서울지법에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연세대는 뒤늦게 유언장을 근거로 학교 재산이라며 유족이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의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고인이 은행 2곳에 남긴 예금과 채권 등은 은행 1곳에 한화 78억원과 미화 166만달러(한화 약 20억원), 다른 은행 1곳에 한화 25억원 등 모두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난 아직 팔팔... 단순직은 싫어”



13일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06 노인일자리 박람회'에는 1만여 명의 노인들이 몰려 '새로운 일자리'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나원침기자 mjna@kwangju.co.kr

13일 광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밥을 먹고 나온 전직 운전사 정미수(65)씨는 실망감에 터져 나오는 한숨을 참지 못했다.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모집 부문은 대부분 경비나, 청소직 아니면 도우미인데다 문의 전화번호도 없고 근무시간·급여 또한 '상당 후 결정'인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 1만여명 구직 열기 일부 4.8대 1 경쟁 직업학교 졸업에 각종 자격증도 갖춰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라지만, '한갑을 넘긴 노인'들의 구직(求職) 열기 또한 뜨겁고 절실했다. 정씨는 "정년퇴직은 보장되지 않고,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가는데 제2의 인생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 나왔다"며 "아무리 노인이라지만 보수·복지혜택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이날 박람회장은 종일 일자리를 찾는 노인 1만여 명이 몰려 북적였다. 75개 구인 업체가 제시한 월 급여 수 준은 30~120만 원 선으로, 청소나 경비직 외에는 그나마 4대 보험가입이

나 퇴직금 보장이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이었다.

이런 탓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노인들이 몰린 것은 당연한 결과. 노인교육교사·가정봉사요원 40명을 뽑는 '아카데미평생교육원'의 부스에는 482명이 지원해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른 업체보다 월급이 10여만 원 많고 보험·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DJ 컨벤션센터 경비·청소직에도 445명이 몰렸다.

노인들의 취업준비도 대단했다. 주부 서계남(여·60)씨는 "취업을 위해 지난해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열색가공과 한복디자인, 동화구연 등을 배웠다"면서도 마땅한 데를 찾지 못하고 '간병인' 모집에 지원서를 냈다.

공무원 출신인 박유근(68)씨는 명문대 석사학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예절교사 자격증은 물론,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 경력 등을 내세우며 노인교육교사 부문에 지원했다. 박씨는 "내 또래 노인들은 배드민턴을 즐길 정도로 체력도 튼튼하고, 능력도 있는데 불러주는 곳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박람회장에서 모집하는 일자리는 1천630명. 오후 5시 현재 6천736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광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42만 명 가운데 9만9천388명으로 7.1%를 기록, 올해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7% 이상)에 진입했다.

/사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병원 탈출하다 추락사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 2명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13일 새벽 1시50분께 순창군 H병원 6층에서 환자 윤모(40)씨와 김모(45)씨가 환자용 시트를 이용해 만든 줄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했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광주 일곡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김씨는 서울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다. 이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과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창=이홍식기자 hslse@kwangju.co.kr

## 농협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광주동부경찰, 관계자 3~4명 소환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에 압수수색한 <본보 8월26일 3면> 경찰이 일부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잡으면서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은 13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에서 압수한 회계장부와 인사채용 서류 등 1만여 쪽에 대한 검토를 끝낸 뒤, 3~4명의 농협 관계자와 거래처 인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농협이 ▲소모품 또는 사무용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부풀린 뒤 그만큼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시간제 사고심사역 1명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자들이 의혹 내용 중 일부를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한 뒤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는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며, 광주본부 정모 본부장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임주희기자 jhlhm@kwangju.co.kr

## 변호사 71명 신용정보 불법거래

건당 20만~30만원 수수료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윤모(45)씨 등 변호사 71명과 법무사 2명, 변호사 사무실 직원 16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사건 의뢰인의 민사채권이 마지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 의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19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거래 확인서를 신용정보업체에 제출한 뒤 채무자의 ▲ 인적사항 ▲ 부동산 및 동산 소유현황 ▲ 주택 및 임대차 현황 ▲ 신용정보·금융거래 내역 등을 건네받아 사건수임 여부 판단, 맡은 사건과 관련한 가압류·명도소송·채권보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건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일반 민사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를 얻으려던 재산명시 신청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연합뉴스

염산 누출 인근 병원 환자 대피 소동



○13일 오전 7시 47분께 해남군 옥천면 농공단지 내 S화학공장에서 염산액이 누출, 이 공장에서 10m 떨어진 P산업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근로자 6명이 염산 가스에 중독돼 입원 치료 중.

○화학공장 인근 H병원에서는 밤사이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폭발로 오인, 환자 150명을 긴급 대피시키는 등 이 일대가 한바탕 소동.

○병원 측은 "근로자들이 구토·호흡장애 등의 증세를 호소했지만 다행히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해남=박정욱기자 jopark@kwangju.co.kr

중국을 향한 열렬한 동양사!!

# 리틀차이나 중국문화원

Little China Culture Center

중국어학원, 중국유학원, 중국여행사

www.littlechina.co.kr

(주)리틀차이나 TEL. 226-8511

BRAVIA SONY

# 브라비아 2년 무상보증 서비스 실시!

R Series V Series E Series S Series

BRVIA